광주 광산구 '해묵은 숙원' 과밀학급·원거리 배정 해소되나

올 신입생 26명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내년 224명 선발

하남2지구에 18학급, 504명 규모 광산고 2027년 개교

광주시교육청이 명진고(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광산구 고교 과밀화, 학생 원거리 배정 등 해묵은 과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명진고가 학교 법인 전 관계 등의 비위로 그동안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학생모집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여자고등학교였던 명진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224명(8학급)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을 2025학년도부터 모집한다.

명진고는 학생 지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신입생 배정 인원이 26명에 그쳤다.

현재 1학년 1학급, 2학년 2학급, 3학년 2학급 등 '미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명진고는 지난달 학생 충원과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다.

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배치 여건과 학교 시설, 제반여건, 교육과정 운영 적절성 등을 검토해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산구의 난제인 과밀학급 문제,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광산구는 고교 신입생 수보다 학교 수가 턱없이 적어 해마다 1000여명이 다른 자치구의 고교로 배정되고 있다. 중학교가 26개인데 비해 평준화 일반고는 11개교로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교육청은 명진고 학교 정상화 점검단을 꾸려 진로 진학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산구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남학생들은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을 원하는 응답이 많아 명진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늘면 원거리 배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시교육청은 광산구 고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광산구 하남2지구 구 하남초 폐교부지에 18학급, 504명 규모의 (가칭)광산고등학교를 신설한다. 광산고는 2027년 6학급, 168명 규모로 출발해 2029년에 완성학급으로 운영된다.

광산고는 교육환경평가,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5년 9월 착공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고등학교가 신설되고 명진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광산구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과밀학급·과대학교 운영 등의 문제가 해결돼 학생·학부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진고는 1986년 광산구 수완동에서 광이고(여고)로 개교한 뒤 세종고, 명진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학교법인 전 관계자의 비위, 공익 제보 교사 상대 소송 등의 문제로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미달사태가 이어졌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에서 "명진고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는, 우선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연학원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교육청은 선행조건을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온 명진고에 면죄부를 주며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야! 방학이다 23일 여름방학을 맞이한 광주시 광산구 금구초 5학년생들이 환호하며 교정 밖으로 달려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연중 부상 치료비 못 받아…함평나비축제 황당

상해보험 등 조치 없이 축제

400여만원 치료비 어쩌나…

'제26회 함평나비축제'에서 공연 중 부상을 입은 출연자가 주최측인 함평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에 출연했던 A씨는 23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공연 도중 부상을 입고 3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축제 관계자로부터 40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나비 퍼레이드' 공연 팀으로 축제에 참가해 덤블링 동작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 아킬레스건(발 뒤꿈치 힘줄)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초 축제 관계자로부터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전해 들었으나, 지난달 돌연 '공연단원에게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상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다니던 체육관 덤블링 운동 강사직에서도 해고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후로도 같은 피해자가 반복돼서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행사종합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책임보험'과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이들 보험은 제3자(손님, 관객 등)가 입은 피해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만 보장하며 직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

재단은 또 A씨가 재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서 산재 처리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A씨는 축제 감독인 B씨가 별도의 행사 관련 업체를 통해 섭외한 공연팀 소속으로, 재단과는 일종의 '재하청'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는 "이전 축제 기간 동안 가입해 왔던 보험을 관례적으로 들어 왔었고, 공연 출연자가 배상 대상자가 아닌 사실은 몰랐다"며 "보험사를 변경하는 등 추후 행사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CCTV 복원했더니…옷 벗기고 바닷물 끼얹은 범행 새로 드러나

사건 인사이드

당초 진술 내용과 다른 영상

목포지청, 선장·선원 5명 기소

선원을 상습 폭행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선장과 선원 5명의 충격적인 범행 행태가 뒤늦게 드러났다.

선장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한 선박의 CCTV영상 9700여개에는 악랄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은 최신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영상을 복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선장 A(45)씨와 조리장 B(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이 폭행혐의로 송치한 다른 동료 선원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을 방조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3~4월 출항 후 2개월간 선원 C씨를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급기야 지난 4월 30일 숨지게하고 다음 날인 5월 1일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와 다른 선원 3명은 단순히 C씨를 폭행한 것으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이 복원한 영상에는 진술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C씨가 지난 3월 선장 A씨의 배에 탔을 때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증거가 남겨져 있었다.

C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A씨와 다른 선원들은 둔기 등으로 구타했다. 잠도 선실 밖에서 자게 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결국 기아상태에 이른 C씨는 범행 당일 또다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지만, 선장은 선원들에게 C씨의 옷을 벗겨 차가운 해수를 뿌리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선상에서 발가벗겨진 C씨에게 호스로 바닷물을 뿌렸고 C씨는 급격히 체온이 떨어졌다. 당시 12도 저온에다 바닷바람까지 불었다.

A씨는 C씨를 조타실로 옮겨지만 15분 만에 숨졌다. 하지만 A씨는 조타실에 눕혀 놨는데 C씨가 홀로 숨졌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들은 C씨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버렸고, 시신을 무거운 물체와 함께 그물로 감싸 바다에 유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과학수사기법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원 근로감독 기관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주 숙박업소 업주 살해 달아난 60대 검거

경찰이 광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6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64)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B씨의 친척으로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하던 중 B씨가 문을 닫은 숙박업소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최근 영업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숙박업소 1층 현관문 인근에서 발견된 B씨 시신의 안면부 등에 외상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어 타살정황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23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일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절도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